

# 聖居山 晚日寺 調査報告

—石窟式寺院經營을 中心으로—

李 殷 昌

- |          |              |
|----------|--------------|
| 一. 序 言   | 2. 第二石窟      |
| 二. 石窟式寺院 | 3. 石窟式寺院經營問題 |
| 1. 第一石窟  | 三. 結 論       |

## 一. 序 言

忠清南道 文化課에서 「道內文化財寫眞帖」을 보다가 聖居山 晚日寺의 石造遺物의 寫眞을 보고 느낀바 있어 이곳을 調査코자 機會를 찾았다. 그러는 동안 1963年 가을에 晚日寺를 調査하였다. 마침내를 같이 하여 當時 公州博物館長 金永培氏의 踏查가 있어 「考古美術」<sup>(1)</sup>誌에 紹介된 바도 있는데 筆者는 이 晚日寺를 調査하고서 其 「石窟寺院」의 經營에 對하여 느낀바 있고 石窟 遺物들은 또한 參考資料가 되는 것임으로 보다 詳細한 考察을 하여 불가 한다.

天原郡 聖居面 天興里 聖居山麓에는 高麗時代의 大伽藍으로 推定되는 天興寺址<sup>(2)</sup>가 있어 五層石塔<sup>(3)</sup> 一基와 幢竿支柱<sup>(4)</sup> 一基가 現存하고 그리고 天興寺鍾<sup>(5)</sup>이 傳하며 (李王家博物館 所藏) 이 附近 田畝 一帶에는 礎石과 瓦片이 散在하여 往時의 盛勢하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서 東南쪽으로 聖居山 深谷을 타고 올라가기를 約 3km 쯤이면 東 南 北 三面은 高峻한 奇岩石壁이 둘러있어 아름다운 風景을 이루고 西로는 열려 眼下에 牙山 天原 平澤 等 諸郡의 小丘陵과 平野가 一目에 들어오는 展望이 좋은곳에 晚日寺<sup>(6)</sup>가 자리 잡고 있다.

晚日寺의 寺貌는 조그마한 庵子인바 現在의 庵子의 建物은 創建 當初의 伽藍과는 變動이甚하여 昔今의 큰 差異가 있다. 殘存하는 遺構와 遺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東側 岩群 및 天然石窟 속에 磨崖石佛座像이 있는데 이를 第一石窟이라 하겠다. ② 다시 南쪽 옆으로 天然岩壁에 磨崖石佛

(1) 金永培 天安 晚日寺址踏查記 考古美術 第四卷 第十號

(2) 東國輿地勝覽卷之十六 稷山縣 古蹟條에 天興寺 在聖居山下 今廢 有唐時所堅銅橋

이라하였으니 李氏朝鮮初에 이미 廢寺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銅橋은 現存하는 幢竿支柱인바 이 記錄 當時는 銅幢竿이 있었던 모양이며 이는 高麗 것이다.

(3) 국보도록 제五집 圖版九八 天興寺址五層石塔 同解說 參照

(4) 국보도록 제四집 圖版八一 天興寺址幢竿支柱 同解說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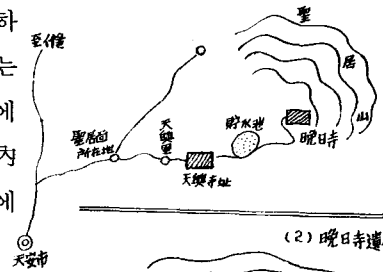
(5) 「聖居山 天興寺 鍾銘 統和 二十八年 庚戌二月 日」이라 한 鍾銘이 있는 것으로 高麗顯宗 元년에 造成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總高五尺五寸・口徑三尺二寸이다. 朝鮮國寶의 遺物及古蹟大全 351面 天興寺鍾 參照 關野貞著 朝鮮의 建築と藝術 天興寺鍾 第六四圖條 參照

(6) 東國輿地勝覽卷之十六 稷山縣佛宇條 龜菴寺・萬日寺・新菴寺, 俱在聖居山

座像이 浮刻되었고 앞에는 築臺上의 木造架構址의 礎石列이 殘存하고 그 앞으로는 五層石塔 一基가 있어서 마치 또 하나의 石窟寺院의 遺跡을 엿 볼 수 있으니 이를 第二石窟이라 하겠다. ③ 이 밖에 前記石窟과 岩壁사이 에 있는 岩窟內에는 石造佛小像 八軀가 殘存하여 注目된다 ④ 그리고 向右南側에는 後代建築인 觀音殿(近世建築이 北向하고 있는바 이 殿內에는 觀世音菩薩像<sup>(7)</sup>이 奉安되었다. 또 ⑤ 觀音殿의 相對便에 僧侶의 居處室인 僧房이 있고 下側에도 僧房이 있다.

晚日寺

(1) 晚日寺附近略圖



(2) 晚日寺遺構配置圖



- 1... 第一石窟
- 2... 第二石窟
- 3... 五層石塔
- 4... 石佛像(8軀)

二. 石窟式寺院

1. 第一石窟

巨大한 岩塊 數個가 서로 떠받아 不整形天然石窟을 形成하였는바 直徑 約4m 高 3m의 空間을 이루었다. 이 石窟內에는 아무런 構造的 遺物은 없고 다만 磨崖石佛座像이 있어 石窟寺院을 構想한 意匠을 推定할 수 있다.

(1) 磨崖石佛座像

天然石窟속에 西北向하고 있는 高 230cm 底邊 240cm의

石英質이 많은 花崗岩을 大略 三角形으로 整齊한 岩面에 浮彫된 磨崖石佛座像인바 花瓣이 넓고 둥근 모습을하고 雄健한 맛을 주는 仰瓣蓮花座(五葉)위에 頭部 身部 膝部 등에서 屈曲을 지은 光背形 龕室속에 高200cm 膝幅 102cm의 正面座를 取하였다.



第一石窟內座象磨崖石佛

頭髮과 顔面은 破缺로 當初의 相好는 알 수 없고 現在의 頭部 顔部 白毫相等은 後補物로 鈍厚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길게 늘어진 兩耳와 頭部の 三道가 殘存하고 있어 當初의 鮮麗한 線을 엿 볼 수 있다. 右肩偏祖한 衣紋은 集群된 平行斜線이 흘러내려 무릎을 덮었으며 寫實的이라기 보다는 圖案的인 刻明한 刀法을 보이고 있다. 結跏趺坐한 무릎위에 降魔觸地의 印相은 곧 釋迦如來座像인가 한다.

第一石窟內의 本尊像인 磨崖石佛座像의 特色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光背形 龕室을 設한 것이니 곧 慶州南山彌勒谷의 磨崖石佛座像<sup>(8)</sup>의 龕室의 意圖를 踏襲한 것이라 하겠다. ② 또 平行斜線으로 된 衣紋을 한 것이니 곧 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座像<sup>(9)</sup>과 洪城五官里寺址 石佛座像<sup>(10)</sup>의 成段平行衣

(7) 忠清南道誌 名勝古蹟篇 晚日寺條 參照

(8) 秦弘燮 慶州 南山彌勒谷의 磨崖石佛座像 考古美術 第四卷 第四號

(9) ① 국보도록 제3집 圖版七十六 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座像 同解說條 參照

② 關野 貞著 朝鮮의 建築と藝術 朝鮮美術史 101面 鐵像條 參照

(10) 拙稿 洪城五官里寺址의 幢竿支柱와 石佛座像 考古美術 第六卷 第一號

紋의 意匠에 類似한 것이라 하겠다.

以上 記述한바와 같은 造像樣式과 體軀의 數值的 均衡 등으로 보아 高麗의 遺品으로 推定되며 이것으로 高麗時代의 石窟經營의 一例임을 짐작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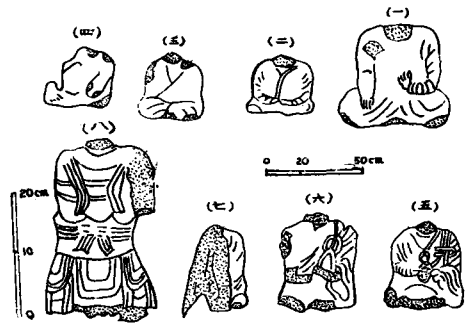
(2) 石造佛小像 八軀

石造佛小像 八軀는 前述한 磨崖佛像을 奉安한 第一石窟 附近 岩間에서 收拾된 것이다. 모두 破佛로 頭部를 缺失하고 身部 또한 破損이 極甚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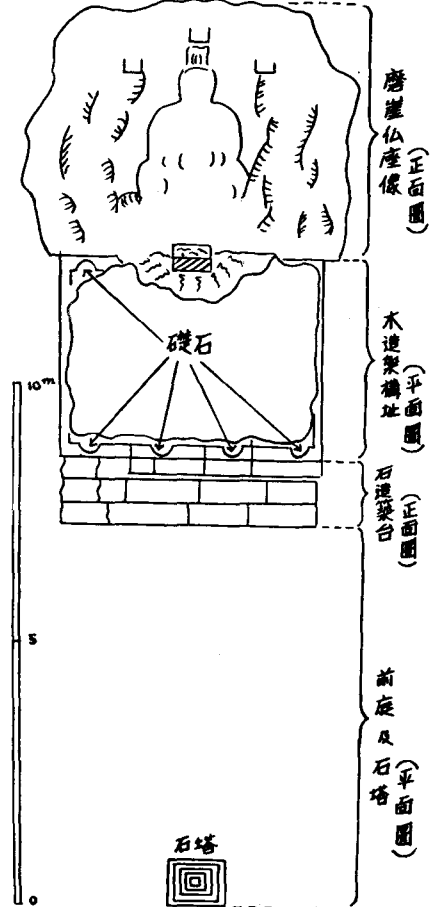
石造佛小像 八軀中 (一)은 如來像인바 花崗石製로 衣紋이 比較的 流麗하고 結跏趺座에 觸地印을 取하였다.

(二) (三)은 赤褐色 蠟石製로 結跏趺座하였는데 衣紋手法은 鈍厚한 表現이다. (四)는 綠白色 蠟石製로 磨滅이 甚한데 右側 膝部를 세운것 같이 突出되어 있어 或是 左傾像이나 아닌가 한다. (五) (六)은 赤褐色 蠟石製로 座像인바 衣紋은 모두 勁健하며 (五)는 通肩衣에 袈裟를 메고 있고 (六)은 右肩偏袒의 法衣에 亦是 袈裟를 메고 있음에 注目된다. (七)은 赤褐色 蠟石製 座像인바 大破로 背面의 一部分에 衣紋이 보이는데 前者 (五) (六)과 同一手法으로 推定된다. (八)은 赤褐色 蠟石製 立像인바 頭部 脚部 등이 缺失되고 身部만이 남아 있는데 몸을 束帶 裙衣로 감아 武裝모습을 보이고 날선한 허리 뒤로 갖혀 버틴 가슴 등에서 氣魄이 넘쳐 흐르며 衣紋 또한 高彫의 手法이어서 注目되며 或是 神將像에 屬하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數 值
	高 幅
(一)	43cm 47cm
(二)	24 25
(三)	31 29
(四)	28 26
(五)	38 32
(六)	43 30
(七)	40 30
(八)	25 16



石造佛小像 八軀



第二石窟 實測圖

頭部와 顔部가 缺失되었고 身部도 破損이 甚하여 諸小像의 全體 彫刻을 把握하기 어려우나 現存部分의 樣式傾向으로 보아 이 절이 全盛하던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以上列記한 石造佛小像 八軀는 第一石窟 밖의 어느 法堂에 奉安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八軀中 (二) (三) (四) (五) (六) (七)의 七軀는 그 數值上으로 보든지 그 造像모습으로 보아서 羅漢像으로 推定되는바 이절이 大盛하던 高麗時代에는 이들 羅漢像을 奉安하던 羅漢殿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와같이 石窟以外 伽藍建物을 配置하는 例는 일찌기 이 石窟寺院의 經營例로 傳해오는 것이다.

## 2. 第二石窟

第一石窟에서 南쪽 向右便에 峻拔한 高 約 5m 幅 約 6m 의 自然岩壁이 있는데 이 自然岩壁 西面에 磨崖石佛座像이 浮刻되고 그 앞에 木造架構遺址가 認定되며 그 앞으로 五層石塔이 建立되어 있으니 이는 亦是 石窟經營의 意匠에서 起源하는 龕室奉安의 方式을 取한 것이라 하겠으며 그 構造가 注目되는 바다.

### (1) 磨崖石佛座像

앞에서 말한 自然岩壁의 西面 中央部에 浮彫된 것이니 곧 磨崖石佛座像이라 하겠다. 風化로 磨滅이 極甚하여 다만 結跏趺座한 如來座像의 輪郭이 推定될 뿐이다.

### (2) 木造架構遺址

石窟樣式을 取한 木造龕室架構의 經營은 磨崖石佛座像의 頂上에 品字形 位置로 ㄱ字形의 凹孔턱을 만들어 架構部材를 걸치도록 하였고 또 磨崖石佛座像의 正前에는 橫 4.9m 縱 3.8m 高 1.3m 의 石造築臺가 있고 築臺上에는 礎石列이 殘存하고 있어 前室木造架構(石窟式 龕室)가 있었던 遺址가 認定된다.

木造架構遺址를 살피면 ① 長方形으로 加工된 石材로 築造된 築臺는 最上石을 簡單한 前方突出部를 構想하여 基壇甲石 모습의 構造를 보이고 또 築臺上의 礎石도 加工石인바 前方切半部만 柱座가 配慮되며 各礎石이 相連되어 있는데 이 築臺와 礎石은 樣式上 麗末鮮初의 築造로 推定된다. ② 그리고 石佛을 彫刻한 母岩에 品字形 小孔을 뚫어 木部材를 걸치고 前室架構를 築造하는 石窟經營方法은 벌써 瑞山泰安磨崖三尊佛像<sup>(11)</sup>의 石窟式 木造架構의 例를 볼 수 있으니 이곳 石窟式 遺構가 百濟時代의 石窟寺院經營方法에 起源하는 것으로 그것이 後代에 踏襲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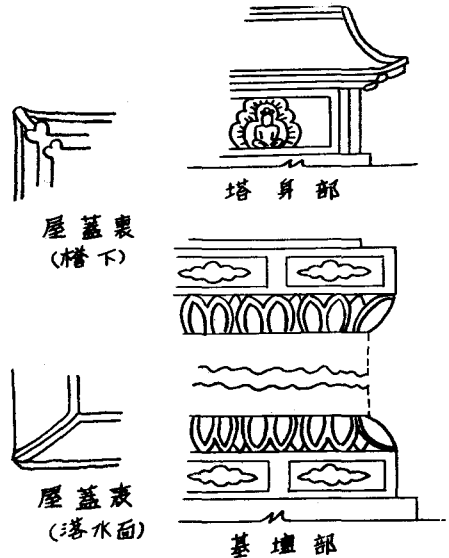
### (3) 五層石塔

岩壁上의 磨崖石佛座像 앞의 前室架構址인 築臺 正前에 있는 五層石塔이다.

① 基壇은 四角盤石위에 欄干이 特設되었는바 各面 四區씩의 木造欄干에서 볼 수 있는 「欄



五層石塔



五層石塔各部圖解

(11) 黃壽永 忠南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第十七・十八 合輯

干궁창」<sup>(12)</sup>이 彫刻되고 그 위에는 伏蓮紋이 둘러 있다. 또 前者와 같은 樣式을 한 仰蓮紋과 欄干 欄干「欄干궁창」 등이 彫刻된 四角盤石을 仰形으로 重置하여 基壇을 形成하였는데 元來는 圖解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上下盤石사이에 中石이 있었을 것이나 缺失로 未詳하다.

② 屋身은 各面 四角形周緣郭을 刻出한 것으로 間壁을 區劃하고 各間內에는 如來座像을 配置한 바<sup>(13)</sup> 이러한 屋身이 五層까지 繼續되었다. 屋蓋는 檐下에 二層級의 「屋蓋받침」 以外에 木造瓦葺 建物에서 볼 수 있는 浮椽 春舌刻 사래 등이 表示되고 강한 反轉을 보이고 있으며 落水面도 亦是 木造建物에서와 같이 「四隅降棟」과 「당골마루」의 造出이 있어 四區로 나누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의 屋蓋가 亦是 五層까지 繼續된다.

③ 相輪은 缺失되고 塔頂에 擦竿孔만이 殘存할 뿐이다. 造塔手法는 精巧한 便이나 彫刀方式이 얇고 規模가 작으며 樣式은 麗末鮮初의 木造建物에서 볼 수 있는 傾向으로서 弘濟洞五層石塔과 神勒寺多層石塔의 系列에 두어야 할 것<sup>(14)</sup>으로 그 實年代는 麗末鮮初로 推定된다. (現存 總高 240cm)

### 3. 石窟寺院 經營問題

以上 記述한 晚日寺는 麗代 石窟寺院의 한 例로 第一石窟과 第二石窟이 있어 各各 特色을 보이고 있다.

① 第一石窟은 自然石窟內에 主尊像을 奉安하고 其他 伽藍은 石窟外에 經營한 것이다. 곧 天然石窟을 그대로 石窟寺院으로 利用하기도 하고 自然岩壁에 鑿設하는 石窟寺院으로 이들 石窟에는 佛像을 奉安하고 以外 伽藍建物이 窟外에 築設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은 例는 百濟石窟寺院으로 公州西穴寺<sup>(15)</sup>方式에 始源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軍威三尊石窟<sup>(16)</sup>을 거쳐 이곳 晚日寺 第一石窟에 이르는 系統을 찾을 수 있다.

② 第二石窟은 自然岩壁에 磨崖佛을 造像하고 前方에 木造前室을 經營하며 그 앞에 石塔이 建立되었다. 곧 自然岩壁에 龕室을 經營하여 그 안에 磨崖佛을 奉安하고 그 前方에 木造前室을 築設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은 石窟寺院經營도 亦是 그 始源은 百濟代時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瑞山郡泰

(12) 石塔 基壇에는 眼象을 使用하는 例는 많으나 樓閣의 欄干·石橋의 欄干·層橋의 欄干 등의 「궁창」모습을 彫刻하는 例는 晚日寺石塔에서 처음 보는 稀少한 것으로 注目되는바 이는 年代가 降下하는 手法으로 推定된다.

(13) 晚日寺石塔의 屋身石各面에 四角形 周緣郭을 造出시키고 그 가운데에 佛像을 浮彫하는 例는 玄化寺七層石塔屋身浮彫의 意匠과 相通되고 後作으로 이 晚日寺에 가까운 天原郡 北面 大坪里寺址(傳九龍寺址)石塔의 各層屋身石의 四角形 周緣郭內에 佛像을 浮彫한 例(1967年 9月30日 忠清南道教育委員會의 依頼에 應하여 筆者 調査)와 같다. 特히 晚日寺石塔例와 大坪里寺址石塔例와는 地域도 隣近地이지만 그 意匠手法 年代를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麗末喇嘛敎의 影響을 입은 것이나 아닌가 한다.

(14) 黃壽永 弘濟院 沙峴寺址 五層石塔 郷土서을 第十一號

(15) 東國輿地勝覽卷六十七 公州牧 佛宇條 西穴寺 在望月山이라 한바 있고 又玄 高裕燮先生에 依하여 西穴寺가 論述(高裕燮 著 朝鮮塔婆의 研究 伽藍造營과 塔塔價値의 變遷)된바 있는데 寺址에서 百濟時代의 遺物을 비롯하여 新羅 高麗兩代의 遺物도 出土되었다. 公州에는 後代에 建立된 石窟寺院인 南穴寺·東穴寺 등이 있어 石窟寺院의 遺例를 짐작 할 수 있다.

(16) 黃壽永 軍威三尊石窟 美術資料 第六號

(17) 本稿 註11 參照

安磨崖三尊佛像<sup>(17)</sup>과 瑞山郡雲山磨崖三尊佛像<sup>(18)</sup> 등의 經營方式이 그 始源型이라 하겠다. 그리고 新羅統一期の 奉化北枝里磨崖佛像<sup>(19)</sup>・慶州南山佛谷石佛座像<sup>(20)</sup> 등을 거쳐 高麗時代의 槐山院豐里磨崖佛座像<sup>(21)</sup>・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座像<sup>(22)</sup> 등에 이르는 石窟寺院의 系統을 밝히는 바 이곳 晚日寺二石窟은 이 系統의 最末期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③ 石窟寺院 經營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自然岩窟造營方式과 木造前室築造方式 等 以外에 加工石片으로 石窟을 築造하고 또 그 前方에 木造架構를 添加하는 石窟寺院造成方式이 있다. 이는 古新羅末 慶州南山長倉谷三尊石像<sup>(23)</sup>에서 그 始源型을 보고 新羅統一期の 吐含山石窟庵・清原郡靈下里石像<sup>(24)</sup> 등을 거쳐 高麗時代의 槐山郡彌勒里石窟寺院<sup>(25)</sup> 등의 系統을 밝힌 것으로 생각 된다.

晚日寺第二石窟의 磨崖佛像앞에 木造前室을 架構하고 그 앞에 石燈・石塔等을 配置하는 方式은 곧 前述한 바 있는 清原郡靈下里石窟寺의 例와 槐山郡彌勒里石窟寺의 例와 같은 樣式이고 이는 吐含山石窟庵의 制度에서 오는 經營方法인가 한다.

石窟寺院은 그 源流를 佛敎의 本據地인 印度에서 찾아야 하겠는데 이 印度式石窟寺院의 影響을 直接 받기도 하고 또는 印度에서 西域을 거쳐 中國에 이르는 樣式인 雲岡・龍門等 石窟寺院의 影響을 받기도 하여 우리나라 石窟寺院<sup>(26)</sup>이 成立되었다. 우리나라의 石窟寺院 經營의 始初는 中國에 가장 가까운 位置인 瑞山地方 곧 當時 百濟가 中國과 海路로 連絡하던 泰安半島이니 泰安磨崖三尊佛像이 그것이다. 六世紀頃에 百濟의 西端인 泰安半島에서 起源한 石窟寺院은 岩壁龕形內에 佛像을 奉安하고 木造前室을 經營하는 方法인바 이는 石窟寺院의 最初요 또 始源型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石窟寺院은 다시 東進하여 瑞山郡雲山磨崖三尊佛像・公州西穴寺 等の 經營 例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百濟에서 新羅에 東傳한 石窟寺院經營은 古新羅末에 慶州南山長倉谷三尊石像의 經營例를 보이고 新羅統一기에 慶州를 中心으로 南山佛谷石佛座像의 實例와 吐含山石窟庵 等 좋은 例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안에 洛東江流域으로 또는 太白山脈기슭으로 傳播되었고 南漢江流域으로 번져갔으니 軍威三尊石窟・奉化北枝里磨崖佛像・清原靈下里石窟寺院 등이 있다. 그리고 高麗時代에는 槐山院豐里磨崖佛座像・槐山彌勒里石窟寺院・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座像 등이 있다. 이들 石窟寺院의 分布狀況을 살펴보면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三國時代에 이미 西海岸의 泰安半島에서 起源하고 東進하여 公州에 이르고 다시 新羅에 東傳하여 古新羅末에 시작하여 統一以後 慶州地方・洛東江流域・太白山脈기슭・南漢江流域으로 傳播되며 盛況을 이루었다.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그 分布地域을 더욱 擴大시키며 이들 石窟寺院이 盛行하였다. 이 石窟寺院의 傳播順路와 分布狀況을

(18) 黃壽永 瑞山磨崖三尊佛像에 對하여 震檀學報 第二〇號

(19) 鄭永鎬 奉化北枝里的 磨崖佛像 考古美術 第三卷 第十二號

(20) 1936年度 古蹟調查報告 第四 慶州東南山の石佛의 調査一. 一佛谷の石佛(圖版 第四八)一條 參照

(21) 국보도록 제삼집 불상편 槐山院豐里磨崖佛座像條 參照

(22) 前掲書 北漢山舊基里 磨崖釋迦如來座像條 參照

(23) 黃壽永 慶州南山長倉谷에서 옮겨진 三尊石像 史學會誌 第七輯 延世大刊

(24) 拙稿 清原郡 靈下里石像 考古美術 第五卷 第四號

(25) 鄭永鎬 高麗의 石窟寺院址一槐山上毛面彌勒里寺址의 調査報告一 (한국일보)

(26) ① 黃壽永 石窟庵의 創建과 沿革 歷史敎育 第八輯

② 黃壽永 印度石窟寺院調査略記 佛敎學報 第三・四合輯 東國大刊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A	泰安磨崖三尊佛像	忠南瑞山郡泰安面白華山	百濟時代
	雲山磨崖三尊佛像	忠南瑞山郡雲山面龍賢里	百濟時代
	公州西穴寺	忠南公州郡公州邑望月山	百濟時代
B	慶州南山長倉谷三尊石像	慶北慶州市南山長倉谷	古新羅末
C	慶州南山佛谷石佛座像	慶北慶州市南山佛谷	新羅統一期
	吐含山石窟庵	慶北月城郡陽北面凡谷里	新羅統一期
D	軍威三尊石窟	慶北軍威郡佶溪面南山洞	新羅統一期
	奉化北枝里磨崖佛像	慶北奉化郡物野面北枝里	新羅統一期
	清原靈下里石窟寺院	忠北清原郡北二面靈下里	新羅統一期
E	槐山院豐里磨崖佛座像	忠北槐山郡延豐面院豐里	高麗時代
	槐山彌勒里石窟寺院	忠北槐山郡上茭面彌勒里	高麗時代
	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像	京畿道高陽郡恩平面舊基里	高麗時代
	天原晚日寺石窟	忠南天原郡聖居面天興里	高麗時代

이에 列記한 石窟寺院을 要約하여 말한다면 百濟의 西海岸地方에서 六世紀頃에 起源하여 東南進하고 古新羅의 慶州에서 再出現하여 그 後 羅麗兩代에 이르는 동안 洛東江流域・太白山脈기슭・南漢江流域 等地에 傳播하는 分布狀을 보이고 있다.

### 三. 結 論

大抵 晚日寺는 麗代의 石窟寺院의 한 例로 그 伽藍은 第一石窟과 第二石窟로 區分된다. 第一石窟은 自然岩窟內에 磨崖佛像(釋迦如來座像)을 奉安하고 石窟外 伽藍을 建立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는바 百濟 公州西穴寺의 自然岩窟經營의 始源型의 系統을 받아 왔다. 그리고 後에 第二石窟을 造成하니 自然岩窟에 磨崖佛을 奉安하고 木造前室을 建築하며 그 앞에 石塔을 建立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는바 亦是 百濟 泰安磨崖三尊佛像의 木造前室經營의 始源型의 系統을 踏襲한 것이라 하겠다.

晚日寺는 二個의 石窟寺院이 經營된 셈이니 印度 中國에서 볼 수 있는 多數의 石窟이 集群된 石窟寺院에 相通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特殊한 伽藍經營方法이라 하겠다. 特히 이러한 石窟寺院에는 흔히 道僧의 修道處가 된 일이 있으니 聖居山의 山名도 偶然<sup>(27)</sup>한 것이 아니라 이에 緣由됨인지도 모르겠고 또 往時에는 天興寺 와도 關係가 깊은 寺刹인것 같이 생각된다.

(27) 忠淸南道保寧郡 聖住山은 無染大師가 聖住寺에 住持한 以後 寺名이 聖住로 되고 山名 또한 聖住라 하였 다. 聖居山도 或은 이러한 山名緣由가 있거나 않은가 한다